

‘유심’이 뽑은 문학 구원자들

유심작품상 김초혜·조동화·권기호·김교한·서준섭씨 선정

만해 한용운 스님은 무명(無名)과 혼돈이었던 시절을 불교적인 세계관과 조우하며 문학으로 진리의 빛을 발현했다. 혼돈과 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해준 만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한국현대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문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유심작품상이 8번째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불교문학을 대표하는 유심작품상은 이제 문인들에게 있어서 이력서에 꼭 한 번 넣고 싶은 명예로운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유심작품상 심사위원들은 현대문학을 이끌어가고 발전을 도모하는 작가들을 선출하기 위해 더욱 고심이 많아졌다. 이번 심사위원단은 이근배 위원장을 중심으로 권영민, 김재홍, 김재현, 유자효, 이기갑, 이경철, 이상국, 장영우, 최동호, 홍성란 등 중진문인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고심 끝에 특별상, 시, 시조, 평론부문에 걸쳐 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8월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만해축전 기간 중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현대문학을 이끌어 갈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2010년 새로운 문학의 구원의 길을 걷게 될 5명의 수상자와 작품들을 만나보자.



시계방향으로 김초혜, 조동화, 서준섭, 김교한, 권기호

현대적 감각의 결합, 언어의 압축과 내성적 시각의 균형, 인간의 삶에 대한 긍정과 사랑 등을 높이 평가해 시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조 부문을 수상한 조동화 시인의 작품은 <대구시조> 2009년 제13호에 발표된 '빛'이라는 작품이다. 소통불능과 자폐증에 빠진 자유시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져 가는 이때에 시조가 다시금 민족사의 정통과 정체성을 드러내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조동화 시인은 정형(定型)이란 민족의 살가운 소통의 틀에 담긴 크고 영원한 세계, 오늘날의 구체적인 일상의 시를 보여준다. 현대시조의 이런 본질적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은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시 '빛'은 "먼 우주 가로질러 사람들 가슴 가슴에 와 닿는 빛"이라는 구절에서 보여주듯이 밝고 가벼우면서도 순간과 영원, 너와 나의 존재들을 소망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기품 있는 시이다.

평론 부문을 수상한 서준섭의 비평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건설한 학문적 토대위에 중후한 시선으로 우리근대문학의 생성에 지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서준섭의 작품들은 불교의 선사상에 깊은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어, 직관이나 불교적 사유 등이 그의 비평에 녹아나 있다. 서준섭의 수상작인 '창조적 상상력'은 이런 그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특별상은 전년도와 달리 두 명의 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기호 시인과 김교한 시인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중진문인이면서 현재에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권기호 시인의 작품들은 강명찬 진솔 속에 현대문학을 비판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권기호 시인 또한 선불교의 사상이 발원해 돼 초현실주의 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권기호 시인은 대체적으로 시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선과 하이데거 시론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비평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높이 평가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이러한 문학적 특징이 현대문학을 이끌어가는 중진문인으로서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교한 시인은 현대시조의 위상정립과 시조단의 형성에 일익을 담당했던 시인이다. 그는 '율(律)' 동인으로서 문학 활동을 펼쳐나가며 한 평생 시조의 중흥에 앞장서 남다른 열정을 기울여 왔다. 김교한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매화'는 아직도 많은 시인들이 노래하며, 삶의 곡진한 의미들이 배어나는 작품이다. 이근배 위원장은 김교한 시인의 시조를 두고 "자칫 처세의 도에 가려질 뻔한 그의 업적과 성취들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금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e04@buddhanews.com

용호도로 발견한 한중 교류

고관화박물관 한·중세화전 3월 30일까지

목판은 다른 회화작품과는 달리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그래서 예부터 목판에는 당시 유행하던 그림을 새겨 대중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유행했다.

이런 목판의 복제기능을 가장 잘 살려 사용했던 그림이 바로 용호도(龍虎圖)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용호도는 문에 붙여 잡귀를 물리치고 복을 들이는 문배도(門排圖)로 성행해 왔다.

하지만 이런 용호도가 비단 우리나라에만 성행했던 사실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목판이 발견돼 주목되고 있다. 원주 고관화박물관관장 선학은 한국의 용호도가 중국에서 전래됐음을 입증해 주는 희귀목판을 공개했다.

용호도는 우리나라 일부 민화화자들에게 의해 민족 고유의 자생적인 풍습에서 나온 그림이라는 것이 전 반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고관화박물관에서 공개한 이 목판은 현 상황을 반증해 주는 사례이다. 용호도 중 하나인 호작도(虎鵲圖, 까치와 호랑이 그림)의 경우를 보면 중국에서는 보희도(報喜圖, 까치와 표범 그림)가 성행했는데,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호작도로 발전했다는 주장이다.

보희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호작도와 달리 소나무 대신 오동나무가 그려져 있고, 표범이 원숭이, 까치와 함께 등장한다. 고관화박물관에서 공개한 중국 호작도는 이런 보희도에서 호작도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명나라때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호작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날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교류가 있었음을 추정해 주는 자료가 된다.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정병모 교수는 "이 판목은 호랑이의 무늬를 도시적이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했는데, 이러한 특징은 중국 산둥성 랑자부에서 간행한 민화의 양식"이라며 "그러한 점으로 봤을 때, 이 판목은 산둥성 지역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세화 문배도인 용호도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경인년 새해맞이 한·중 세화전'은 3월 30일까지 고관화박물관에서 열린다. (033)761-7885 이은정 기자



고관화박물관 소장 용호도

불상·사경·불구 등 한 자리에

호림박물관 '불멸의 빛 금과 은'展

화려하고 매혹적인 빛깔로 꺼지지 않는 욕망의 대상인 금과 은이 불교의 대표 예술품인 불상·사경과 만나 사람들에게 선보여 진다.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관장 오윤선) 신사분관에서는 2010년 새해를 맞아 3월 28일까지 '영원을 품은 불멸의 빛, 금과 은'을 전시한다.

전시는 '찬란한 진리의 빛 -불상(佛像)과 사경(寫經)' '지극한 공덕(功德)의 빛-불구(佛具)' '화려한 삶의 빛-장신구(裝身具)와 생활용품(生活用品)'으로 구성돼, 옛 미술 속에서 금과 은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자리이다.

특히 이번 전시의 메인전시인 불상과 사경 작품은 벌써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금과 은은 불교의 세계를 화려하고 정교하면서도 장엄하게 표현하는데 탁월했던 소재이다.

사경작품 같은 경우, 금과 은을 이용해 일자일배(一字一拜)의 지극한 정성으로 경전의 내용을 그리고 써



보물 752호 <갑지금니대방광불회엄경 보현행원품 권34>

공동으로 개체한다. (02)541-3523 이은정 기자

내려간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국보 211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 권1-7>과 보물 752호 <갑지금니대방광불회엄경보현행원품 권34>를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 몇 점 남아 있지 않은 고려불화인 보물 1048호 '지상시왕도'도 함께 선보여진다. 또 불교미술의 정수를 잘 보여주지만 그동안 미공개 됐던 금속공예의 핵심인 소탑, 향완, 금강령, 금강저, 석장두, 사리기 등도 대거 출품된다.

전시는 이밖에도 일상생활의 각종 장신구와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 영역에서 금과 은의 화려함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 신사분관은 '영원을 품은 불멸의 빛, 금과 은'과 함께 설치미술 작가 지니 서(Jinnie Seo)를 초대해 'Metal Soundscape-울림' 전시를

선칠 용맹정진 (7일 용맹정진)

- ◆ 결재일 : 2010년 1월 24일 (일요일) 오후 7시 결재
- ◆ 해재일 : 2010년 1월 31일 (일요일) 사사회향

대한불교조계종 묘실상선원
042)585-0778 / 010-6555-6696

신수비결 (효타비결서) 2010년 경인년의 운세 (25,000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작명, 개명, 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 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으며, 한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였음
- ※ 회원님께는 1개월 동안 40% 할인해 드립니다. (3만원 착불)

역학(효타비결 전수생 모집)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개인지도 2주에 완성 해 드립니다)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순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 010-7121-9406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p>방한용털신</p> <p>•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p>	<p>특무명털신</p> <p>•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5mm단위)</p>
<p>부츠(여)</p> <p>•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p>	<p>사계절단화</p> <p>• 풍산동 99% • 지압식 깔창</p>
<p>조각무명</p> <p>•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p>	<p>특무명</p> <p>•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p>
<p>지압깔창</p> <p>발명특허원 41435 풍산동 99% • 가격 : 20,000원</p>	<p>NAVER 통합검색 민행화 검색</p> <p>인터넷쇼핑몰 만행화.com 검색해보세요</p>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주민) 합장

◆ 동안거 결재중 법공양 올리실 사부대중님의 전화상담 받습니다 ◆